



company



FEMALE PERCUSSION GROUP

DRUM CAT

파워풀 여성타악그룹 드럼캣



1. About DRUM CAT

- 드럼캣 스토리

2. Performance

- 공연개요
- 기획의도>>공연구성
- 공연사진

3. Review

- 언론



2006년

- 드럼캣 1st 콘서트 (서울랜드 콘서트 홀)
- 서울 국제 드럼 페스티벌 참가
- 세종문화회관 별밤페스티벌 초청 공연

2007년

- 서울 국제 모터쇼 공연
- Hi-Seoul 페스티벌 공연
- 남산 N타워 공연
- 한국, 터키 문화교류 50주년 초청공연
- 터키 앙카라 공연
- 세종문화회관 별밤페스티벌 초청공연

2008년

- 드럼캣 2nd 콘서트 (LIG 아트홀)
- Hi-Seoul 페스티벌 시청광장 공연
- 드럼캣 3rd 콘서트 (한전 아트센터)
-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참가
- 세종문화회관 별밤페스티벌 초청공연
- 어게인 에딘버러 프린지 앙코르공연
- Korea in Motion 대구 초청공연

2009년

- 드럼캣 전용관 콘서트 2009. 9. 18~ Open Run
- Korea Sparkling 페스티벌 참가
- 태국 공연 (한국관광공사 주최)
- 대중상 시상식 초청 공연

2010년

- 드럼캣 전용관 콘서트 (명보아트홀)
- 유럽 4개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 투어 - 2010.10.04~12.05
- 태국 공연 (한국관광공사 주최)
- 대중상 시상식 초청 공연

2011년

- 홍콩 캐세이퍼시픽 구경 퍼레이드 참가
- 태국 제8회 여행박람회 TTF 공연
- 싱가포르 Wah! Korea FESTIVAL
- 싱가포르 World Gourmet Summit 2011
- 방콕 KOREA NIGHT 공연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관광공사 개소식 참가
- 설악 워터피아 7.16~8.28 '드럼캣' 공연
- 싱가포르 SENTOSA WORLD 공연
- 상해 MICE ROAD SHOW 참가
- 태국 공연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주간 초청 공연
- 일본 미야자키 웨라톤 워커히 호텔 공연

2012년

- 싱가포르 Wah! Korea FESTIVAL
- 방콕 World Gourmet Summit 2012
- 방콕 KOREA NIGHT 공연
- 싱가포르 SENTOSA WORLD 공연
- 상해 MICE ROAD SHOW 참가
- 태국 공연
- 일본 동해테레비 정규공연 15~17일(3일간)

2013년

- 경기도민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해단식 공연
- 2013 월드 슈퍼바리스타 챔피언십 결선 대회
- VITM HANOI2013 초청 공연
- Doosan New Brand Strategy & New Products Launch
- 중소기업 중앙회 '문화 나눔의 밤'
- 삼성전자 문화의 달 (수원 삼성전자)
- 서울 신청사 나들이
- 방콕 로드쇼
- 일본 하우스텐보스 상설 장기공연(1달)

2014년

- K-Nonverbal Festival in Beijing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선정(군부대)
- SMG 초청공연-중국 상하이
- 세월호 피해여파 지원사업 선정

2015년

- 중국 5개 도시 투어(대련, 심양, 광저우, 무단장, 장춘)
- 시티슬라이드 2015 코인모 쇼케이스
- 드럼페스티벌 개막식 & 아티스트 참가

2016년

- "시크릿포레스트" 오픈런 명보아트홀

2017년

- 태국 "SHOW DC" 기획콘서트

2018년

- 아프리카 HIFA 페스티벌 "코리아판타지" 공연
-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2019년

- 두레콘서트100회기념 축하공연

2020년

- K퍼포먼스 온에어 랜선콘서트

2021년

- 대한민국공연관광 쇼케이스 "렛츠무브 코리아" 공연

2022년

- 삼성문화의달 공연
- 웰컴대학교페스티벌 공연
- 제1회서울창의교육콘서트 공연
- 크리스마스콘서트 가평문화예술회관 공연

2023년

- 내셔널클래식페스티벌 공연 외 다수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이라는 Motto로

‘드럼캣’은 새로운 탄생하였습니다.



창작공연의 불모지라는 국내공연문화에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음악공연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꾸준히 진화해 오던 드럼캣은 2008년 세계최고의 공연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해외의 유명공연들을 제치고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국내 공연으로는 최초로 대표상인

‘해럴드 엔젤상’을 수상하는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09년 9월부터 전용관 공연을 진행하며,

2015년 시즌4_ Secret Forest 까지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inDrum



파워풀 하면서 섬세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여성 타악 퍼포먼스 그룹 드럼캣

2009년 Free Your Soul >> 2011년 The Festival >> 2013년 SOUND FACTORY

<<2015년 Secret Forest>>

세계유일, 국내유일의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타악 퍼포먼스 그룹입니다.

여성의 섬세함에 남성적인 파워풀한 타악 연주를 접목시켜 열정이 폭발하는
경쟁력 있는 공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성의 풍부한 감정 표현을 음악으로 만들어낸 각 장면의 퍼포먼스는
그 의미와 연주의 특성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드럼캣은 관객과 함께 하는 소통을 최고로 생각하며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inD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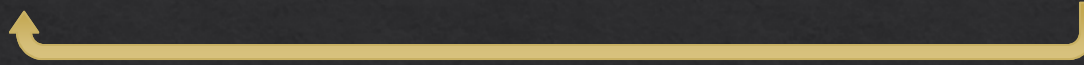
스트레스
(지친 현대인)



드럼캣 공연
(발산, 해소, 에너지 충전)



일상생활로 돌아감
(충전된 에너지로 생활)



✓ We are DRUM CAT!

인드럼은 1995년 부터 시작한 이시도의 공연의 노하우로 만들어내는 리듬소낙비를 맞으며
일상 속 췌양게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낸다.

✓ 모든 관객들이 함께 두드리며 Good Bye Blues!!

우울함의 무게로 잠시도 쉴 틈이 없는 현대인의 뇌에게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우들과 함께 두드리는 체험으로
본능에 충실해 질 수 있는 몰입의 시간, 블랙아웃을 선사한다.

✓ 좀 놀아본 사람처럼 만들어 줄게!

노래방을 가셔도 잘해야 하고 클럽 에가셔도 춤을 잘 춰야 하고
남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놀아 본적 없는 그대! 인드럼 공연에 마음을 맡겨라!
매력적인 인드럼의 그녀들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당신의 열정을 발산시키다.

✓ 신나게 흔들다 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찬다!

힙합, 일렉트릭 등 트렌드의 흐름을 주도하며 관객들과 친숙한 장르로 한 걸음더 다가간다.

공연이 끝날 즈음에는 가지고 왔던 무거운 마음은 던져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외부행사



inDrum

국내 언론

북치는 고양이들“스트레스야! 한 번 맞아볼래?”

솔직히 공연을 보기 전에 선입견이 있었다. ‘드럼은 역시 남자의 것’이라는 마초적 우월감, 존 본햄의 심플하면 서도 중후한 드러밍, 더블 베이스드럼을 묵직하게 밟아대던 코지 파월의 맘 찬 ‘육(肉)벽지’를 떠올려 보시라.

‘캣’이란 이미지 역시 드럼과는 사뭇 멀지 않은가. 대충 가벼운 스네어드럼 하나 정도 놓고, 색시코드를 과장한 몸짓을 하며 치는 듯 말 듯 하다 끝내겠지.

그러나 이 무모한 발상이 무참하게 깨져나간 것은 고작 공연 시작 10분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다. 드럼캣의 리더 이시도의 솔로 타임, 훌쩍 큰 키에 예의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 근육이 제대로 배긴 팔 한쪽을 드러낸 이시도는 등장할 때부터 쿼기 서린 듯 심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뽐낼 줄 알았다.

그의 드럼 솔로를 뭐라 형용해야 할까. 현존하는 드러밍의 묘기란 묘기는 다 보여 주었다.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현묘하다. 한 손으로 두 개의 스틱을 돌려 북을 두드리는 장면에서 입을 벌리고 말았다.

북치는 고양이, **드럼캣**. 다분히 근육질적인 드럼과 미묘한 성적 **감성**을 꼬리 속에 감춘 고양이의 이미지를 합쳤 다?

장기 **공연** 중인 드럼캣을 보기 위해 명보아트홀을 찾았다. 티켓을 건네고 극장 안으로 들어서니 ‘DRUMCAT’의 이란 문구가 **커튼** 위에 빛으로 선명히 새겨져 있다.

예정시각을 5분 정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공연이 시작됐다. 사운드가 우선 충실하다. 공간을 찌렁 울리는 저 음이 관중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르륵 훑고 지나간다. 입체 **안경**을 쓰고 실내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다.

은막 저편에서 차례차례 등장하는 캣우먼들. 하차투리안의 원곡에 강렬한 드러밍을 얹은 **오프닝**이 시작부터 주 먹을 쥐게 만든다.

마침내 오프닝의 그림자를 벗고(막에 가려 그림자만 볼 수 있었다) 여섯 명의 캣우먼이 모습을 드러냈다. 관객 의 환호성이 쏟아진다. 무대 앞 편의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양 손의 엄지를 치켜 올린다.

일단 단단한 마음의 벽이 무너지자 이후 공연은 8차선 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렸다. 오고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스페이스 캣’,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정과 협연한 ‘바이올린을 위한 아랑훼즈’, ‘북도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다’를 보여 준 ‘톰톰(TomTom)’ 등 심장이 터질 듯한 타악의 폭우가 즐기 즐기 쏟아져 내렸다.

한 마디로 시원하고 후련한 공연. ‘이래도 버틸 테냐’하고 **스트레스**에 선전포고를 해버린 공연. 하루가 일주일 처럼 지루한 사람, 반대로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리는 사람, 포르쉐를 타고 200km로 경부고속도로를 달 려보고 싶은 사람(결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여자가 무슨 드럼이야’하는 조선왕조 오백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단 하나, 색시함에 지나친 기대를 하고 간다면 다소 실망할 수 있다. 드럼캣은 생각처럼 색시하지만은 않다. 북 치는 고양이보다는, 북치는 샹젤리에 좀 더 가깝다는 것이 기자의 감상이다.

9월 11일-2010년 8월 10일 명보아트홀 가온홀 1문의 02-2274-2121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발표**

東亞日報

2009-11-02



inDrum

해외언론

TINGLING SPINES (in France) 2010 DrumCat 유럽투어 리뷰

Ça a vibré, ça a déménagé...



Les 500 spectateurs ont eu droit à un véritable show chorégraphié.

■ Les six percussionnistes coréennes de Drumcat ne se contentent pas de battre en rythme, c'est un véritable show chorégraphié qu'elles ont offert aux quelque 500 spectateurs venus samedi 27 novembre à la salle polyvalente. Le genre de spectacle où laisser son portable allumé n'a pour ainsi dire aucune incidence... Sous des feux de rampe comme ensorcelés par le rythme endiablé du concert, les interprètes féminines de ce spectacle puissant ont fait honneur à leur école de percussion de Séoul. Seule une sélection des meilleurs éléments ont pris part à cette tournée internationale qui les a menés en Hollande et les conduit maintenant, après leur passage en France, en Allemagne. Mayenne était la seule halte prévue cette année en Pays-de-la-Loire. Didier Chalaux, d'ODCP Spectacles, espère bien les faire revenir en 2012...

TINGLING SPINES (2010.11.27) in Mayenne

Drum Cat 공연 리뷰

500 명의 관객과 DRUMCAT가 함께 만든 열정의 90 분.

6 명의 타악 연주자들의 DRUMCAT 공연에는 한계가 없다.; DRUMCAT는 지난 토요일 (11 / 27) Le kiosque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잘 짜여진 안무와 멋진 드럼 연주 실력이 결합 된 환상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공연 도중 자신의 휴대 전화가 울리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 차릴 수 없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공연장 내 열기는 뜨거웠다. 화면 이름 한 조명 아래, 콘서트 와일드 리듬에 때로 강력한 쇼의 주인공 인 연주자들은 DRUMCAT 팀의 실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난 회원들에게만 구성된 이번 유럽 투어 팀은 네덜란드를 시작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독일 순서로 국제적인 공연을 펼친다. Mayenne에서의 공연이 프랑스의 마지막 공연이지만 ODCP Spectacles의 본부장 인 Didier Chalaux는 DRUMCAT가 내년에 프랑스에서 또 공연을 갖는 것이며 이것은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언론

해외 언론이 바라본 드럼캣

The Herald신문 Drum Cat 공연 리뷰 By. Rob Adams

한국의 여전사인 Drum Cat은 최면을 거는 듯한 매혹적인 공연을 위해 많은 악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공연장 출입이 가능한 시간 전까지 악기 들을 공연장 입구에 대기시킨 뒤, 기다려야 했다.

또한 그들의 안무가 잘 구성된 드럼 연주는 몇몇의 어색했던 배경음악의 단점을 100배 극복 할 수 있었다.

공연의 후반부에 올려 퍼진 베토벤 Odd to Joy의 레코드 버전인 마지막 곡은 단적인 예로 최근 유럽 챔피언십 축구개막식 축하 송 후보에서 떨어진 것처럼 원곡 대비 그다지 매력적인곡이 아니다. 하지만, 날렵한 움직임의 캣우먼인 DRUM CAT은 이러한 점을 오히려 눈부신 드럼연주를 통해 무마시켰다.

눈부신 스틱 연주, 작은북소리의 일격,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심벌소리와 함께 그녀들은 천둥번개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모양의 삼면으로 둘러싸인 드럼에서, 2인 1조를 이루어 머리 결을 휘날리며 드럼연주를 하는 공연자들이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다.

또한 한국판 브리타니 계 음악인 Drum Cat은 그 전통성에 대한 느낌도 보였다. 드럼캣 공연은 공연자들의 익살스러움과 또 그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시각적으로 눈부시고, 그들의 안무는 쉼없이 안무된 발레의 느낌이 난다.

그러하기 때문에, 타악 공연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해비태털적 디스코 느낌이 나는 공연을 보고 있으면 드럼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심장박동의 즐거움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The Herald dated August 08, 2008, by Rob Adams. The article title is "Dream of Cat, C Too". The star rating is ****. The main text describes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troupe Drum Cat, noting their use of many drums and their mesmerizing, often outdoor performance in the rain. It mentions that some of the drums are used in a choreographed skill that makes it necessary to forgive some of their unfortunately dreadful backing tapes. The article also notes that the canned version of Ode to Joy that blasts forth towards the end wouldn't have made the shortlist even for football's recent European Championships opening ceremony but the point about these limber young cat women is that they turn such guff into percussive gold. A final paragraph states: "They move like lightning, sticks twirling, snare drums crackling and cymbals splashing with brilliant precision. It's a minor miracle nobody gets whacked as they bob, weave and pummel drums in pairs within three three-sided frames, displaying extraordinary stick control, as well as a strong sense of theatre and mime-like hair-awareness." The article includes a photo of a mobile phone with the text "Exclusive online offer" and "T-Mobile". The article is surrounded by various website navigation and advertisement elements.



해외언론

DERWESTEN(in Germany) (2010.12.06) By. Ulrich Steden ★★★★★

공원극장에서의 드럼캐트 - 힘있고 진동하는 역동성

2010.12.06, 울리히 슈테덴

한국 드럼그룹 “드럼캐트”은 공원극장에서 극적인 쇼를 보여주었다.

이저론. “그냥 환상적이다”, “이러한 완성도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아직도 너무나 흥분된다.” 이러한 감탄들이 금요일 저녁 남한 드럼그룹 “드럼캐트”의 에너지 넘치는 콘서트가 끝난 후 공원극장의 로비에서 들려왔다.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80분 가까이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격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거의 실재없이 리듬과 재미를 선사하였다.

별써 서막에서 비디오크린 상의 빠른 편집과 거의 사이키델릭한(환각을 일으키는 듯한) 음악 및 드럼의 쿵쿵거림은 수줍은 자우어란트의 관객들에게서 바로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조명쇼는 공연을 뒷받침하였다. 음악적으로 “드럼캐트”은 모든 형식을 다루었다. 이는 암슈타인의 인기곡 “두 하스트(너는 가진다)”에서 카리브 섬의 선율을 넘어 “프로이데 쇠너 괴터폰켄(아름다운 신들의 선물의 기쁨)”에서 라틴아메리카 선율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락, 재즈와 테크노의 비트도 공연에 흘러들어 독특한 음색을 형성하였다. 유머, 완성도, 발레요소가 적절히 섞인 혼합물과 완벽한 무용 교본으로 본 콘서트의 자극은 분명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드럼캐트가 타악기스펙트럼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깊은 음들이 심벌즈와 노출된 금속의 음과 경쟁하여 갈수록 격렬해지는 리듬을 형성하는 듯했다. 타악기솔로만으로도 5분을 훌쩍 넘겼고, 이는 그날 저녁의 여러 고점 중 하나에 해당하였다.

격렬한 드럼쇼 외에도 “Aran Fuez for Violin” 곡에서는 “멋진 바이올린 연주자”가 관객을 열광시켰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충전했던 콘서트의 말미에는 공원극장 내 누구도 앉아있지 않았고, 서서 박수 갈채를 보내며 검게 차려입은 앙상블을 배웅했다.

그들의 고향 한국에서 “드럼캐트”은 2003년의 창단 이후 콘서트 및 축제의 단골 초대손님이 되었으며, 주기적으로 공연을 펼치는 그들만의 극장을 보유하기도 한다. 본 그룹은 2008년 “에딘버러 축제 Herald Angel상” 및 “스코틀랜드 카발케이드 Best Unit Award”를 수상하였고, 2009년에는 그들의 고국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대상”을 수상하였다.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the website DERWESTEN. The article is titled "„Drumcats“ im Parktheater" and "Kraft und vibrierende Dynamik". It reports on a performance by the Korean drum group Drumcat at the Parktheater in Iserlohn on December 6, 2010. The article describes the group's energetic and dynamic performance, highlighting their use of various drumming techniques and their ability to create a powerful and vibrant sound. The article also mentions that the group has received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Herald Angel award from the Edinburgh Festival and the Best Unit Award from the Scotland Cavalcade in 2009.



해외언론

중일 신문사(나고야)

はじける音と強烈なパフォーマンス!



"Sexy" "Speed" "Funny" "Powerful" "Wild"

といふほどのテーマで完成された楽曲は、世界中の観客の目と耳を釘付けにしました。モダンビートベースに、ロック・テクノ・ジャズ・クラシックの要素も取り入れた、多彩な音楽性。ハイスピードで振り回される「ドラムキック」の雄偉な音を響かせたパフォーマンスは、観客の心を強く、強く揺るがせています。



国内で初めて、女性メンバーだけで構成されたパーカッショングループ「ドラムキック」。2005年、英国エジンバラ・フリンジャフェスティバルで「パワフルなドラムキック」を賞賛し、ザ・フリンジャフェスティバルで最優秀賞を受賞するなど、海外でも好評を博して来られたグループです。2008年には、次期国際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大賞を受賞し、輝くもソウルの海外公演でロングランを続けています。異色鮮やかなパワフルな演奏に、女性ならではの繊細さが加わったステージが、いよいよ日本で初上陸!

CAST



See Do Chung Yeun Bel Ji Hyo Won Jane Su Ji

「プラスト!」来場者特別先行予約受付中!

特電 0570-02-9999 (Pコード: 423-354)

9/17(月・祝) 23:59まで受付中!

会場 テレピアホール 名古屋市東区東境1-14-25

入場料 全席指定 6,500円(税込)
※観客席の空席数により変更いたします。
70分(演奏会)


上映時間 9月29日(土) 19:00より
詳細は下記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ホームページ www.tokai-tv.com/event/drumcat/

公演日時	12月14日(金)	12月15日(土)	12月16日(日)
開演	11:00	11:00	11:00
開演	18:30	18:00	18:00

本公演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 東京テレビ放送 企画部 TEL: 03-694-1107(平日10時~17時)

コリアン・ガールズ・パーカッショングループ「日本に初上陸!



DRUMCAT
Free your Soul!!

12/14 FRI · 15 SAT · 16 SUN
会場: テレピアホール 名古屋市東区東境1-14-25

企画: 東京テレビ放送 / 中日放送社 制作: 名古屋大規模放送局 / 企画制作: 企画: Drumcat Entertainment INC.

「プラスト!」来場者特別先行予約受付中!

in Drum

해외언론

The Fringe Festival (★★★★★) Review

The Fringe 웹 사이트의 관객수 (5 점 만점 5 점)

1. 영국에서 온 Mike

드럼 연주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멋진 공연! 만약 당신이 드럼은 군악대의 밴드를 위한 공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듯, 드럼캐트는 이 분야의 최고이다. 공연을 직접 느껴라! 이런 공연을 볼 기회는 다시 또 없을 것이다.

2. 영국에서 온 GB

화려한 첫 무대에서 마지막 곡까지 굉장히 신난다. 당신은 Drum Cat 넘치는 열정과 일곱 명의 연주자의 정확한 드럼 연주의 매력에 폭 빠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센스 넘치는 연주자들의 멋진 헤어 스타일도 볼 수 있다. 작은 장소에서 강하게 울려 퍼지는 그녀들의 음악! 작은 공연장에서 관객과 연주자 사이에 친밀한 교감을 느낄 수 있다. 끝난 후에는 공연에 그녀들의 공연에 흠뻑 빠져 사기 넘치는 자신을 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드럼 공연을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3 영국에서 온 Bob

환상적인 무대, 프린지 페스티벌, 내가 본 공연 중 가장 최고였다. 젊고 열정이 넘치고, 또한 안무가도 고안된 여성 드러머 팀 드럼 캐트. 그들의 공연은 당연히 매회 매진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드럼 캐트 공연을 볼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4 독일에서 온 H. Alfke

음악과 춤 사이의 적절한 비율을 이룬 완벽한 공연. 공연의 마지막에 끝없이 울려 퍼졌다 관객들의 기립 박수. 유일한 단점 이라면 공연장이 작았기 때문에 출연자가 움직이는 충분한 공간이 없어 보였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도 시끄러웠다.

5. 영국에서 온 A. Ellis

완전히 괜찮은 공연이었다. 충분히 더 많은 관객과 더 큰 공연장에서 공연하기 적당한 공연이었다. 멋진 7 명의 공연자들은 관객만큼이나 자신들도 공연을 즐기면서했습니다. 보컬 겸 태평소 연주자였던 사람 연주가 놓칠 수 없는 공연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jobs
message boards

★★★★★ Wow! 11 Aug 2008
reviewer: Mike C, UK

Superb craftsmanship from the Drumming Beauties. If you think that drumming is just for the Military and the Rock Bands, think again. These girls are experts in their field, and the enjoyment shows throughout. Give this one a go - you may not get another chance!

report inappropriate review

★★★★★ Dream of Cat 11 Aug 2008
reviewer: GB, Fife, UK

From thunderous opening to joyful finale you'll be swept along by the exuberance and split-second precision of the Drum Cats. (And you'll also see some of the best haircuts in town). The intimacy of the venue, while upping the decibel ante, adds to the overall impact of the experience, and you'll leave with your spirits raised. If you think that drums are for the boys, Dream on!

report inappropriate review

★★★★★ Fantastic Drum Event 04 Aug 2008
reviewer: Bob Phillips, United Kingdom

A Fantastic performance; The best that we have ever seen at the Fringe. Young, enthusiastic, extremely skilful, beautifully choreographed girl group of drummers. They deserve to be booked out. If you can get tickets then don't miss it.

report inappropriate review

★★★★★ A must to see! 04 Aug 2008
reviewer: H. Alfke, Germany

Fantastic show with a perfect balance between music and dance performance. Standing ovations from the audience at the end of the show! The only drawback is the much to small venue: The dancers had not enough space and it was also a little bit to loud in the front rows, especially for younger kids.

report inappropriate review

★★★★★ Dream of cats 03 Aug 2008
reviewer: A. ELLIS, United Kingdom

This is a stunning show, worthy of a bigger venue and audience. The young ladies are masters of their craft who looked gorgeous whilst putting on a show of great complexity and at the same time seeming to enjoy it almost as much as the audience. The male vocalist and brass player also added another dimension to a show which should not be missed.



DRUM CAT
포트폴리오




FEMALE PERCUSSION GROUP
DRUM CAT

파워풀 여성타악그룹 드럼캣



 : drumcat_oficial

 : 010-8370-0603

 : indrumseedo@gmail.com